

범죄두려움에 있어서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효과 : 범죄 피해-두려움에 대한 새로운 접근

장안식*. 정혜원**. 박철현***

국 | 문 | 요 | 약

이 연구는 2009년도 한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통해 범죄피해-두려움 패러독스(범죄피해와 범죄두려움간의 불일치)를 새롭게 탐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2가지 문제의식을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사회에서도 범죄피해-두려움의 패러독스가 존재하는지, 만약 존재하면 연령을 고려했을 때 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둘째, 연령대별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성은 남성보다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의 결과, 연령은 ‘강도·절도·폭행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성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성관련범죄’의 두려움 경우는 여성의 두려움이 연령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남성의 두려움 수준과 평준화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각 연령대별로 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요인은 상이하였다. 특히 10대의 두려움 경우, 기존의 범죄두려움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던 요인으로서는 전혀 설명되지 못하였다. 이를 통해 범죄의 두려움은 연령에 따라 혹은 성별에 따라 다른 모양새를 띠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주제어 : 범죄피해-두려움 패러독스, 성, 연령, 범죄두려움

*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시간강사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연구원, 교신저자(womenj@stop.or.kr)

***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I. 서론

범죄의 두려움에 관한 연구는 서구에서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오고 있는 분야이며, 한국에서도 여전히 주요한 연구 관심 중의 하나이다. 특히 2008년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49.1%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남성은 30.5%로 여성에 비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2008년 형법범죄피해자에 대한 공식통계 결과 피해자의 68.6%가 남성이고, 30.6%가 여성이라는 결과와 논리적으로 불일치하다(김연수·장석현, 2010).

범죄학내에서는 이러한 범죄피해와 범죄의 두려움간의 불일치 현상을 중심으로 ‘범죄피해-두려움의 패러독스(victimization-fear paradox)’ 혹은 ‘두려움의 패러독스(fear paradox)’라고 불리 우며 다양한 경험적 논의들을 진행하였다.

범죄피해-두려움의 패러독스와 관련한 전통적인 논의는 피해경험 관점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에서 피해경험 관점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높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범죄피해자가 될 확률이 낮은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두려움의 역설’에 대한 설명의 일환으로 또한 피해경험 관점에 대한 대안으로 취약성가설(vulnerability hypotheses)나 성역할 사회화(gender role socialization)가 제기되었으며(Maxfield, 1984; Killias, 1990; Killias and Clerici, 2000; Cops and Pleysier, 2011 재인용; 조은경, 2003; 김지선, 2004), 최근에는 취약성과 성역할 사회화 외의 다른 요인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Cops and Pleysier, 2011).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첫째, 성별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차이가 왜 나타나는가에 대한 설명에 논의의 중심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많은 범죄피해-두려움의 패러독스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합치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다(김지선, 2004; 차훈진, 2008; 김연수·장석현, 2010).

둘째, 범죄피해-두려움 패러독스연구는 단일한 차원에서 여성과 남성의 범죄피해와 범죄의 두려움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즉 여성과 남성을 하나의 커다란 집단으로 구분한 후, 단순히 두 집단 간의 범죄피해와 두려움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여성

과 남성안의 다양한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최근 발전-생애과정범죄학에 근거하면 연령이나 인생단계에 따라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나 영향 또한 상이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연령이 여성안의 다양한 차이를 혹은 남성안의 다양한 차이를 고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연령’ 혹은 인생단계에 따라 성별간의 범죄두려움의 차이는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의식들을 통해 범죄피해-두려움 패러독스를 새롭게 탐색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사회에서도 범죄피해-두려움의 패러독스가 존재하는가? 만약 존재한다면, 연령을 고려했을 때 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여성과 연령에 얽힌 두려움의 패러독스를 연구해온 연구자들은 집단 간의 차이에만 초점을 두었을 뿐 과연 어떠한 요인들이 어떻게 남녀 간에 유사하게 혹은 상이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적었다. 이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이러한 간극을 채우고자 하는데 있다. 즉, 연령별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령을 세대별로 구분한 후 성별에 따라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1. 성별에 따른 두려움의 차이 연구

성에 따른 범죄피해와 범죄의 두려움의 비이성적인 불일치현상에 대한 가장 전통적인 논의는 피해경험 관점이다. 이러한 피해경험 관점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부분적으로 피해경험의 산물로써 간주되어진다. 다시 말해서 왜 어떤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 비해서 범죄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는가를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은 그들이 겪은 피해경험과 그에 따른 높은 위험 인지라는 것을 상정한다(Lewis and Salem, 1981). 요약하면, 더 많은 직간접적인 피해경험이 있다면 개인들은 더욱 더

범죄를 두려워할 것이라는 것이다(Balkin, 1979; Liska et al., 1988; Skogan, 1986). 피해경험 관점에서는 피해경험과 두려움간의 패러독스를 종속변수의 측정 문제, 독립변수의 측정문제, 간접적 피해경험 등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Ferraro and LeGrange 1987; Warr and Stafford, 1984; 김지선, 2004 재인용). 그러나 많은 연구들에서 피해경험 관점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Hale, 1996).

이에 피해경험 관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른 한편에서는 취약성가설(vulnerability hypothesis)나 성역할 사회화(gender role socialization) 등이 제기되었다. 취약성가설은 여성은 남성보다 신체적·사회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그들의 신체적 안전과 범죄에 대해 더 두려워한다고 주장하였다. 가장 처음 취약성의 개념을 발전시킨 것은 Perloff(1983)의 ‘인지된 취약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지된 취약성은 주로 미래의 부정적인 결과나 위험 등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여성은 신체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피해가 일어나면 더 큰 신체적 위협의 위험성을 담지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취약성가설은 여성의 신체적 취약성을 강조한 나머지 비폭력적 범죄유형에서 나타나는 비이성적인 여성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취약성가설보다 범죄피해-두려움 패러독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들이 여성주의범죄학자와 좌익실재론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것이 성역할사회화이론이다. 성역할사회화이론은 남성이 범죄활동에 관련될 경향이 높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 수동성, 의존성과 같은 여성의 특성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사회화과정에 의해서 결과라는 것이다(Morrongiello & Dawber, 2000). 하지만, 이러한 성역할 사회화 관점은 여성을 과도하게 수동적이고 두려움에 떠는 존재로 가정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구분은 범죄의 두려움과 성의 관계를 보다 단순하고 정적인(static) 관계로 단정 짓는 우를 범하고 있다.

Fetchenhauer 과 그의 동료(2005)는 가족 내의 성역할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차이를 검토하며, 성역할이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최근에는 취약성과 성역할 사회화 이외 다른 요인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Cops and Pleysier, 2011), 진화심리학 등 다양한 관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연구에서 성에 따른 범죄피해와 범죄의 두려움의 비이성적인 불일치 현상을 발견했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듯하다(김연수·장석현, 2010). 국내에서도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별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연구가 진행되었다(조은경, 2003; 김지선, 2004; 차훈진, 2008; 김연수·장석현, 2010). 김지선(2004)은 성적괴롭힘 피해 경험은 그 행위와 상호작용이 갖는 성적인 속성으로 인하여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차훈진(2008)은 일반 대중들이 평소에 느끼고 있는 범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러한 인식이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여성은 범죄에 대한 취약성인식이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취약성가설이 유용한 설명이 되지 못하며, 신체적인 부분보다는 인지적 심리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김연수·장석현(2010)은 진화심리학적 관점을 활용하여 범죄피해-두려움의 패러독스를 설명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숨은 범죄피해가설과 편향된 측정도구 가설은 기각되었고, 취약성가설은 일부 채택되었으며, 성역할 사회화이론은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학적 혹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라 두려움의 차이가 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위의 연구들처럼 성별에 따라 두려움의 차이가 왜 나타나는가에 대한 설명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 두려움의 차이가 왜 나타나는가에 대한 연구에 앞서 한국사회에서도 과연 범죄피해-두려움의 패러독스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우선 검증할 것이고, 과연 어떤 요인들이 남녀간에 유사하게 혹은 상이하게 영향을 주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2. 연령을 고려한 성별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차이

여성과 남성의 범죄피해와 범죄두려움에서 보여 지는 모순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학자들이 범죄피해경험, 취약성가설, 성역할 사회화이론 등을 통해 다양한 설명들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범죄피해-두려움 불일치가 일어나는 주요 원인들에 대한 연구들만 지속적으로 고찰해 왔다.

최근 발전-생애과정범죄학에서는 인생발달단계에 따른 범죄원인의 다차원적 성격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즉, 특정 발달단계에서 행위자에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이전발달단계에서는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역으로 전 단계에서 중요했던 요인이 그 후의 단계에서는 행위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순래·박철현, 2000).

이 연구에서는 발전-생애과정범죄학적 관점에 근거하여 탐색적 차원에서 첫째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범죄두려움에 변화 혹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연령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는 연령이 두려움의 수준과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Conklin, 1975; Garofalo, 1979: 노성호·김지선, 1998 재인용), 일부의 연구자들은 두 변인들 간에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Bideman et al., 1967; 노성호·김지선, 1998 재인용).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연령이 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를 약화시킨다거나(Furstenberg, 1972; Hindelang et al., 1976; Baumer, 1985), 두려움에 대한 연령의 효과는 오히려 강화된다고 주장한다(Box, Hale & Andrew, 1988). 요약하면, 성과 연령의 효과는 서로에 대해서 조건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Baumer, 1985; Hindelang et al., 1978; Maxfield, 1984; Ortega and Myles, 1987). 이에 과연 한국사회에서 성과 연령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둘째,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속한 세계와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범죄의 두려움도 인간의 변화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연령에 따라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며, 또한 범죄피해-범죄두려움의 패러독스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별에 따라서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연령을 인생 발달단계에 따라 7단계로 구분하고, 성별에 따라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각각의 인생단계마다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새롭게 찾아내기도 하는, 범죄두려움에 대한 연구에서 설명력이 높았던 이론적 개념이나 틀을 활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 인생 단계별로 변인들이 어떠한 형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와 범죄의 두

려움이 각 인생단계별로 어떻게 다르게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고, 기존의 연구에서 주요한 영향력을 미쳤던 이론과 변인들을 중심으로, 이 연구에서 필요한 변인들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두려움에 따른 성차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은경(2003)은 범죄피해경험, 범죄피해자를 알고 있는 정도, 신체적 취약성, 환경적 무질서, 언론의 범죄보도를 접하는 정도, 사회적 지지 등과 같은 요인에 대해 남녀가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가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났고, 범죄발생 시 신체적으로 더 취약하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녀 모두에게 주거환경의 무질서요인과 지각된 범죄피해가능성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김지선(2004)은 성과 관련된 직접적인 피해경험, 폭력과 성폭력 관련 간접피해경험, 그리고 무질서에 대한 인식이 인지된 취약성과 인지된 피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Alvi와 그의 동료들(2001)은 범죄피해경험, 지역사회무질서에 대한 인식, 일상 활동 그리고 지역사회 만족도와 같은 변수를 가지고 여성의 대인적 안전감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무질서와 지역사회만족도가 여성의 대인적 안전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위의 경험적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남녀 간의 범죄두려움의 차이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되는 변인들은 취약성관점과 사회 통제적 요인에 기대고 있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취약성관점과 사회 통제적 요인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한다.

Killias(1990)는 초기의 ‘취약성’ 개념을 보다 확장시켜서 취약성의 개념을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차원으로까지 확장하였다. 그러므로 취약성은 신체적 취약성을 포함하는 개인의 건강이나 활동성, 그리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가와 관련 있는 경제적 능력을 포함하는 사회적 취약성, 그리고 피해가능성과 연관 있는 환경적 신호들을 내포하는 환경적 취약성 등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신체적 취약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성까지 확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사회와 사회통제의 붕괴 징후는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준다 (Lewis and Maxfield, 1980; Lewis and Salem, 1981; Ferraro, 1995).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설명방식은 무질서의 관점과 사회통제의 관점이다. 이 연구에서도 무질서의 관점과 사회통제의 관점에서 성별에 따른 범죄두려움

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무질서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의 양상을 포괄하는 것이며, 통제의 부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질서는 개념적으로 공동의 가치와 규범이 침식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는 낮은 수준의 공동체규범의 위반들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무질서를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무질서와 더불어, 범죄의 두려움은 지역사회의 공식적인 통제와 비공식적인 통제로부터 파생될 수도 있다. 만약 통제가 잘 행해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느낀다면, 두려움의 감정은 통제될 수 있다. 하지만, 통제가 적절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범죄의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이에 사회통제도 공식적인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로 나누어서 고찰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범죄피해조사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회의 일반적인 범죄피해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다. 서구의 경우, 범죄피해조사는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한국에서는 1991년의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심영희·김준호, 1992)’를 시작으로 6차에 걸쳐서 시행되어 왔다 (1993, 1996, 1998, 2002, 2005, 2009).

이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9년도에 실시한 한국의 범죄피해조사 (Korean Crime Victim Survey: 이하 KCVS)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범죄피해조사 (KCVS, 2009)는 표집방법이나 규모에 있어서 많은 부분 기존의 범죄피해조사와 차이가 있다. 조사의 모집단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조사구 중 보통조사구 및 아파트조사구의 모든 가구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으로 정의하였고(김은경 외, 2009), 조사의 표본선정은 전국의 표본규모를 450개의 조사구로 결정한 후에 16개 시도 및 동부, 읍면 부를 고려한 25개 층별로 층화 시킨 후, 각

층별로 연령별 인구를 고려하여 비례배분한 후 확률비례통계 추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4,710가구에 총 10,671명이 응답하였다. 가중치는 설계가중치, 무응답조정가중치, 그리고 사후층화 가중치의 세 단계의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2. 변인의 측정

선행연구들에서 성과 연령 그리고 범죄의 두려움 간의 복잡한 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범죄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인 가산척도로 분석했기 때문이다(Reid and Konrad, 2004).

그러므로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강도·절도·폭행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성폭행관련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구분하여 이용하고 한다. 범죄의 두려움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 분포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LaGrange and Ferraro, 1987).

‘강도·절도·폭행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보다 일반적인 범죄를 상징한다면, ‘성관련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과 친화적인 것처럼 인식 되어 진다.

‘강도·절도·폭행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세 가지의 구체적인 범죄 문항, 그리고 ‘성폭행관련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두 가지의 구체적인 문항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는지를 측정하였다. 절도, 강도, 폭행, 성폭력, 그리고 스토킹 등의 항목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독립변인은 개인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근사변인(proxy)인 개인적 수준의 요인과 지역의 사회통제 정도를 나타내는 지역적 수준의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개인적 수준의 요인들은 개인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취약성을 나타낼 수 있는 변인들로 구성되었다. 개인적 수준의 요인 중 범죄피해경험은 지난 1년간 실제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경험 유무로 구성되었다. 범죄피해의 유형은 크게 가구 범죄피해와 개인범죄피해로 나누어진다.¹⁾

취약성은 킬리아스(Killias, 1990)와 스코겐과 맥스필드(Skogan and Maxfield, 1981)의 논의를 바탕으로, 신체적/물리적, 사회적 취약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1) 가구범죄피해는 단순손괴, 단순침입,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손괴의 다섯 가지 피해 유형이 있고 개인범죄피해는 사기, 절도, 강도, 단순폭행, 심한폭행, 성폭력, 강제추행, 스토킹, 단순협박 및 기타개인범죄피해의 10가지 피해유형이 있다.

신체적/물리적 취약성은 성별, 나이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회적 취약성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로서 교육수준, 수입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의 사회통제관련 지역적 특성 변인들은 지역 무질서와 비공식적 통제, 그리고 공식통제로서 지역사회의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 무질서는 범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상징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피해의 위험이 높다는 인식과 함께 두려움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사회통제론적 관점에서 무질서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연구했던 이전의 연구를 바탕으로(Lewis and Salem, 1986; Taylor and Hale, 1986; Covington and Taylor, 1991),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무질서를 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무질서로 구분한다. 물리적 무질서는 ‘주변에 내버려진 물건이나 쓰레기 더미가 널려 있다’, ‘후미진 곳이나 공터 등이 많다’, ‘냄새나 소음 등으로 쾌적하지 않다’등으로 측정한다($\alpha=.791$). 사회적 무질서는 ‘기초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무리지어 다니는 불량청소년들이 많다’, 그리고 ‘큰 소리로 다투는 사람들이 많다’로 측정한다($\alpha=.784$).

지역사회의 비공식통제는 지역성원들이 범죄예방에 참여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Sampson et al., 1997), ‘동네 아이들이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게라도 도와줄 것이다’, ‘여학생이 불량배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면 어떤 방식이라도 도와줄 것이다’, ‘이웃들끼리 범죄예방을 위해 자율방범대를 조직한다면 방범대원으로 지원할 것이다’,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의 네 문항을 5점 척도로(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응답한 것을 사용한다($\alpha=.795$).

공식적 통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평가는 ‘우리 동네 사람들은 경찰 활동에 협조적이며, 경찰을 신뢰 한다’, ‘우리 동네 경찰은 순찰활동을 잘하고 있다’, ‘우리 동네 경찰은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하면, 즉시 출동할 것이다’, ‘우리 동네 경찰은 범죄사건을 신고하면, 범인을 반드시 잡아줄 것이다’의 네 문항에 대해서 5점 척도로 응답한 것을 사용하였다($\alpha=.851$).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 한국에서의 두려움의 패러독스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고찰은 성과 두려움의 단순상관분석과 각 연령별 두려움의 평균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남녀간의 비교를 위해서 성별로 구분 한 후 각각의 상관분석과 성별에 따른 각 연령별 두려움의 수준을 비교할 것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남녀간에 유사하게 혹은 상이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은 성별에 따른 각각의 중다회귀분석을 통해서 분석할 것이다. 단순히 성별에 따른 집단간 차이만을 보았던 것에서 벗어나 남녀별 각각의 회귀분석을 통해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이성, 유사성, 그리고 상대적 중요성 등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성과 연령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성별 적합값($\hat{y}$)을 구한 후 비교 분석할 것이다. 성별에 따라 회귀분석 후, 각각의 두려움의 패턴이 연령의 변화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고찰하기 위해서 성별 외에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을 각각의 표본평균에 고정시킨후 추정된 적합값($\hat{y}$)을 통해 선형회귀추정 결과를 그래프로 제시하여 비교할 것이다.

성별에 따라 혹은 연령에 따라 구체적인 범죄의 두려움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이라 전제하에, 각각의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성별과 연령별로 나누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할 것이다. 각각의 중다회귀분석을 통해서 성별에 따라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세대별로 영향을 주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IV. 분석결과

1. 주요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표 1>은 이 연구에서 이용된 배경적 변인들에 대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총 응답자 10671명 중 남성은 5112명(47.9%)이고 여성은 5559명(52.1%)으로 여자가 다소 많았다. 연령별로는 10대가 1047명(9.8%), 20대가 1456명(13.6%), 30대가 1944명(18.2%), 40대가 2227명(20.9%), 50대가 1725명(16.2%), 60대가 1228명(11.5%), 그리고 70대 이상이 1044명(9.8%)의 분포를 보였다. 남녀별 분포를 살펴보면, 10대 남성은 564명(53.9%), 여성은 483명(46.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남성의 숫자가 많았다.

표 1. 배경변인의 분포

			남성	여성
성			5112 (47.9%)	5559 (52.1%)
피해경험			442 (8.6%)	366 (6.6%)
연령	10대	1047 (9.8%)	564 (53.9%)	483 (46.1%)
	20대	1456 (13.6%)	776 (48.4%)	862 (51.6%)
	30대	1944 (18.2%)	987 (48.7%)	1011 (51.3%)
	40대	2227 (20.9%)	1096 (49.3%)	1109 (50.7%)
	50대	1725 (16.2%)	812 (49.4%)	838 (50.6%)
	60대	1228 (11.5%)	520 (45.1%)	661 (54.9%)
	70세 이상	1044 (9.8%)	357 (37.5%)	595 (62.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256 (30.5%)	1211 (37.2%)	2045 (62.8%)
	고졸	3699 (34.7%)	1833 (49.6%)	1866 (50.4%)
	대졸 이상	3716 (34.8%)	2068 (55.7%)	1648 (44.3%)
가구 수입	소득없음	167 (1.6%)	62 (37.1%)	105 (62.9%)
	100만원 이하	1644 (15.4%)	687 (41.8%)	957 (58.2%)
	100~200만원	2060 (19.3%)	987 (47.9%)	1073 (52.1%)
	200~300만원	2679 (25.1%)	1335 (49.8%)	1344 (50.2%)
	300~500만원	2852 (26.7%)	1423 (49.9%)	1429 (50.1%)
	500~1000만원	1131 (10.6%)	551 (48.7%)	580 (51.3%)
	1000만원이상	138 (1.3%)	67 (48.6%)	71 (51.4%)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중졸이하가 3256명, 고졸이 3699명, 대졸이상이 3716명이었다. 가구수입별로는 소득 없음이 167명이고, 100만원이하가 1644명, 100-200만원이 2060명, 200-300만원이 2679명, 300-500만원이 2852명, 500-1000만원이 1131명, 그리고 1000만원 이상이 138명의 분포를 나타냈다. 응답자 중 피해경험 여부는 총 10,671명의 응답자 중 808명(7.6%)이 피해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다룰 두 가지의 종속변인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는 <표 2>와 다음과 같다. 종속변인 중 하나인 ‘강도·절도·폭행’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전체 응답자의 경우 평균 7.65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성의 평균(8.15)이 남성의 평균(7.11)보다 높았다. ‘성폭행관련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도 전체 응답자의 평균은 4.40인데 반해서, 여성의 평균은 4.92으로 남성의 3.84에 비해서 평균이 훨씬 높았다.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변수명	전체	여성	남성	범위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강도·절도·범죄에 대한 두려움	7.65 (2.72)	8.15 (2.72)	7.11 (2.61)	3 - 15
성폭행관련 범죄에 대한 두려움	4.40 (1.89)	4.92 (1.95)	3.84 (1.65)	2 - 10
사회적 무질서	7.64 (2.41)	7.61 (2.42)	7.68 (2.38)	3 - 15
물리적 무질서	7.74 (2.50)	7.72 (2.52)	7.76 (2.47)	3 - 15
비공식적 통제	13.02 (2.92)	12.65 (2.88)	13.42 (2.91)	4 - 20
공식적 통제	12.56 (2.75)	12.67 (2.75)	12.44 (2.75)	4 - 20
전체 사례수	10,671	5,559	5,112	

표 3. 두려움에 대한 성별 비교

	성별	N	평균(표준편차)	t
강도·절도·범죄에 대한 두려움	남성	5112	7.11(2.61)	-20.016***
	여성	5559	8.15(2.72)	
성폭행관련 범죄에 대한 두려움	남성	5112	3.84(1.65)	-30.662***
	여성	5559	4.92(1.95)	

표 4. 주요변인의 남녀별 비교

	성별	N	평균(표준편차)	t
사회적 무질서	남성	5112	7.68(2.38)	1.593
	여성	5559	7.61(2.42)	
물리적 무질서	남성	5112	7.76(2.47)	.853
	여성	5559	7.72(2.52)	
비공식적 통제	남성	5112	13.43(2.91)	13.907 ***
	여성	5559	12.65(2.88)	
공식적 통제	남성	5112	12.44(2.75)	-4.417 ***
	여성	5559	12.67(2.75)	

강도·절도·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성폭행관련 범죄에 대한 두려움 모두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08년 형법 범죄피해자에 대한 공식통계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피해경험이 많은 남성이 피해경험이 적은 여성에 비해 범죄두려움을 덜 느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의 무질서를 나타내는 인지된 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무질서의 경우에는, 남성의 평균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무질서의 경우, 전체 평균은 7.64인데 반해서 여성의 평균은 7.61로서 남성의 평균 7.68보다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물리적 무질서에 대한 전체 평균은 7.74로 나타났고, 여성은 평균은 7.72 그리고 남성의 평균은 7.76으로 남성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사회통제관련 변인으로 사용되어지는 비공식통제와 공식통제에 대한 기술통계 또한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비공식통제의 경우, 전체 평균은 13.02이지만 여성의 경우는 평균보다 낮고 남성보다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공식통제에 있어서는 여성의 평균이 남성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2. 두려움과 성, 그리고 연령의 관계

기존의 많은 범죄의 두려움 연구에서는 연령과 성 그리고 범죄의 두려움의 관계를 비선형적으로 가정한다. 하지만, <표 5>에서 보듯이 두 가지의 두려움 인덱스와 연령과의 관계는 비선형적이라기보다는 연령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표 5. 두려움과 성, 그리고 연령의 관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전체
강도·절도·폭행 두려움	여성	8.51	8.81	8.45	8.29	7.99	7.60	6.92	8.15
	남성	7.49	7.03	7.29	7.02	7.11	7.03	6.59	7.11
성관련범죄 두려움	여성	5.49	5.90	5.39	5.07	4.60	4.09	3.62	4.92
	남성	4.11	3.86	4.00	3.90	3.72	3.64	3.41	3.84

우선 남녀간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나에 상관없이 여성의 두려움이 남성보다 높게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격차에 있어서는 ‘강도·절도·폭행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여성의 두려움은 젊은 시절엔 남성보다 훨씬 높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 그 격차가 확연하게 줄어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성관련범죄’의 두려움에서 남녀간의 격차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단순상관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면, 남녀 모두에 대한 연령의 효과는 유의미하지만 부적이었다.

표 6. 두려움과 성, 그리고 연령의 단순상관관계

	연령	
	여성	남성
강도·절도·폭행 두려움	-0.19***	-0.06***
성관련범죄 두려움	-0.35***	-0.10***

3. 강도·절도·폭행 범죄에 대한 두려움 : 남녀차이

<표 7>는 ‘강도·절도·폭행범죄’와 ‘성폭행관련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남녀별로 제시하였다. 먼저, 여성의 ‘강도·절도·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피해경험의 유무와 취약성을 나타내주는 연령, 가구수입 등이 유의미하였다. 지역적 요인에 있어서는 무질서 변인인 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무질서가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회 통제 변인 중에서는 공식 통제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강도·절도·폭행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회귀분석 :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변인	여성			남성		
	B	SE	Beta	B	SE	Beta
연령	-0.012***	0.003	-0.083	0.001	0.002	0.006
교육	0.035	0.042	0.015	0.042	0.040	0.017
소득	0.181***	0.029	0.090	0.102**	0.030	0.050
피해경험	0.725***	0.139	0.066	0.854***	0.126	0.092
사회무질서	0.184***	0.019	0.164	0.173***	0.019	0.158
물리적무질서	0.158***	0.018	0.146	0.110***	0.018	0.104
비공식통제	0.009	0.012	0.009	-0.007	0.013	-0.008
공식통제	-0.029*	0.014	-0.029	-0.019	0.014	-0.020
상수	5.492***	0.343	.	4.602***	0.340	.
사례수	5,559			5,112		
R-squared	0.1295			0.0745		

* $p<.05$ ** $p<.01$ *** $p<.001$

이상의 여성에 대한 모델은 여성이 느끼는 ‘강도·절도·폭행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약 13%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두려움의 정도는 감소하지만 가구수입이 높아질수록 두려움은 증가하는 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무질서를 높게 인지할수록 두

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식통제의 수준을 높게 평가할수록 두려움의 수준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 있어 각각의 변인들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무질서와 같은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강도·절도·폭행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모델의 경우 설명력은 .07로서 여성의 경우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두려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연령과 공식통제를 제외하고는 방향성이나 상대적 영향력에 있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남성의 ‘강도·절도·폭행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들로는 가구수입, 피해경험, 사회적 무질서, 그리고 물리적 무질서 변인들이다. 이상의 네 변인들은 모두 두려움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유의한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에 있어서도, 환경적 요인에 속하는 무질서 변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위에서 설명한 ‘강도·절도·폭행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회귀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남성들의 ‘강도·절도·폭행범죄’의 두려움을 설명하는 독립변인들의 설명력보다 여성의 경우가 더 큼을 알 수 있다. 남성과 여성 공통적으로 무질서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즉, 남성과 여성 모두 주변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이 무질서하다고 느낄수록,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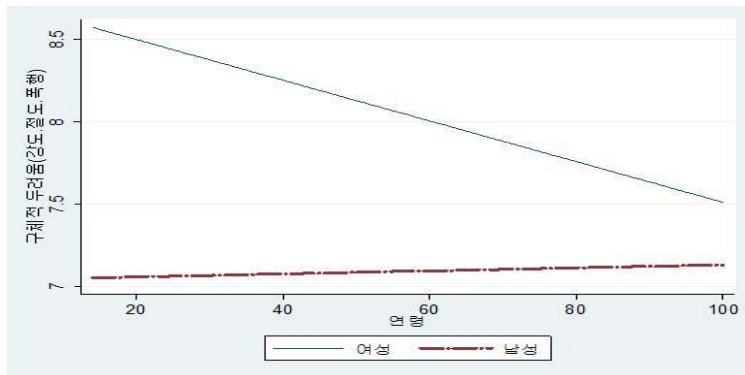
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는 다르게 연령과 공식통제의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들은 주변의 환경적 요인 중 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무질서의 정도가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그들의 연령과 그들이 느끼는 공식통제의 정도에 의해서도 그들의 두려움의 수준은 달라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위의 연구결과들은 기존의 범죄 두려움에 대한 설명방식으로 설명 가능한 것과 설명 불가능한 것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먼저, 피해경험적 설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과 남성 모두 피해경험은 유의미하게 두려움을 증가하게 하는 방향성을 나타낸다. 지역의 무질서 또한 이론적 예측과 동일하게 높은 수준의 무질서를 느낄수록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통제론적 관점은 여성의 두려움을 설명하

는데 반해서 남성의 두려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연령의 두려움의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설명방식 중의 하나인 취약성 관점 또한 이 연구에서는 지지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의 취약성 관점의 설명방식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보호능력의 부재로 여성이 더 높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설명한다. 유사한 방식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이 더 두려움을 많이 느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여성의 경우는 연령의 효과가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그림 1)에서 보다 명확하게 나타난다. 다른 모든 독립변인들을 통제한 후의 남성과 여성의 연령에 따른 ‘강도·절도·폭행범죄’의 두려움은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두려움의 수준이 높게 시작됨을 알 수 있다.



(그림 1) 구체적 두려움(강도·절도·폭행)에 대한 남녀예측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의 두려움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데 반해서 남성의 두려움은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기존의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을 주로 설명하였던 이중위험가설이나 평준화가설과는 반대되는 현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강도·절도·폭행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연령은 ‘강도·절도·폭행범죄’의 두려움에 있어서의 성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적어도 한국적 상황에서 두려움의 패러독스로

서의 연령의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3. 성폭행관련 범죄에 대한 두려움 : 남녀차이

<표 8>은 남녀별 ‘성관련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여성의 ‘성관련범죄’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연령, 교육수준, 가구수입, 피해경험, 사회적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부적인 영향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유의미한 변인들의 효과는 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여성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관련범죄’의 두려움은 감소하였다. 하지만, 교육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구수입이 증가할수록, 피해경험이 있을수록, 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무질서에 대한 인지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성관련범죄’의 두려움은 증가하였다. 사회통제관련 변인의 경우는 비공식적 통제와 공식적 통제 모두 여성의 ‘성관련범죄’의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여성의 ‘성관련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인들의 상대적 효과를 비교하면, 여성의 ‘성관련범죄’의 두려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연령으로 나타났다. 사회적/물리적 무질서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표 8. 성관련 범죄 두려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변인	여성			남성		
	B	SE	Beta	B	SE	Beta
연령	-0.024***	0.002	-0.228	-0.004**	0.001	-0.045
교육	0.141***	0.029	0.084	0.016	0.025	0.010
소득	0.070***	0.020	0.049	0.079***	0.019	0.061
피해경험	0.404***	0.096	0.051	0.221**	0.081	0.038
사회무질서	0.119***	0.013	0.148	0.109***	0.012	0.157
물리적무질서	0.088***	0.012	0.114	0.032**	0.012	0.047
비공식통제	0.006	0.008	0.009	-0.001	0.008	-0.002
공식통제	-0.014	0.009	-0.019	-0.012	0.009	-0.020
상수	3.853***	0.236	.	2.719***	0.218	.
사례수	5559			5112		
R-squared	0.1941			0.0537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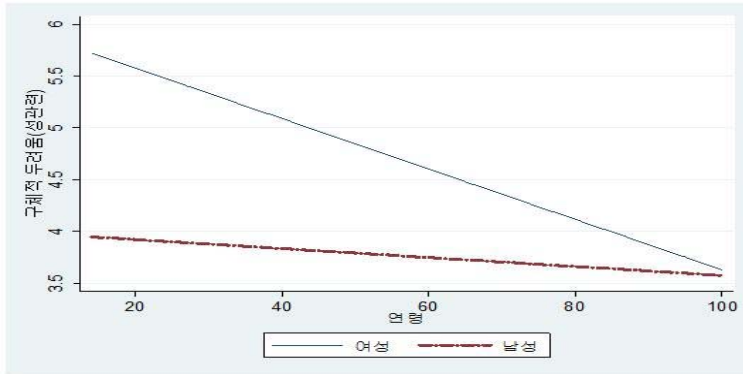
남성의 경우, 여성의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던 변인 중에서 교육을 제외한 연령, 가구수입, 피해경험, 사회적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 등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방향성 또한 여성이 경우와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남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관련범죄’의 두려움은 감소하였다. 하지만, 가구수입이 증가할수록, 피해경험이 있을수록, 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무질서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의 ‘성관련범죄’의 두려움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성관련범죄’의 두려움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연령의 효과보다는 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무질서가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련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성별 모델을 비교해보면, 몇 가지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남녀별 모델의 설명력에 있어서, 여성의 모델은 여성이 가지는 ‘성관련범죄’의 두려움에 대해서 약 19%를 설명하는데 반해서, 남성의 모델은 약 5%만을 설명한다. 상대적 영향력의 비교에 있어서도, 여성과 남성 모두 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무질서가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주지만 여성의 경우는 연령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특히, 유의미한 요인들 중에서 여성에게만 교육의 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성관련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토하면 (그림 2)와 같다. 여성의 경우 한번 높게 형성된 두려움의 수준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비록 남성의 경우도 유의미하게 감소하긴 하지만, 남성의 감소의 폭은 여성에 비해서 지극히 작다. 결론적으로, 한국적 상황에서 ‘성관련범죄’에 대한 남녀 간의 두려움의 격차는 남성의 변화는 미약하지만, 급격히 변하는 여성의 변화로 인해서 연령이 성과 범죄의 두려움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이러한 경향은 기존의 남녀 간 두려움의 성차를 설명하는 가설들(이중위험가설과 평준화 가설)중에서 평준화 가설이 보다 적합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하지만, 평준화가 되는 과정은 기존의 서구이론이 설명하였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서구에서의 평준화 가설은 남성의 경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증대된 취약성으로 인해 두려움이 증가하지만, 여성의 두려움은 안정적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준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반

대의 양상으로 평준화되어짐을 보여준다.



(그림 2) 구체적 두려움(성관련)에 대한 남녀 예측

4. 연령을 고려한 성별에 따른 범죄의 두려움 차이

비록 몇몇의 연구에서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기는 했지만, 기존의 두려움의 패러독스에 대한 연구에서 성별간 두려움의 격차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로 단일한 차원에서 여성과 남성의 집단 간 차이만을 살펴보았다. 발전-생애과정범죄학을 굳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인생단계에 따라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나 요인들의 상이한 차이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범죄두려움이 연령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며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와 연령별 따라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분석은 연령을 인생발달단계에 따라 7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성별에 따라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표 9>은 ‘강도·절도·폭행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각 연령별 그리고 성별에 따른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성별과 전 연령대에 걸쳐 비교적 일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으로서 사회적 무질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무질서는 20대부터 60대까지 남녀 모두에게 있어 그들의 두려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10대에게 있어 사회적 무질서는 전혀 유의미하지 않으며, 70대 이상의 경우에는 오직 남성에게만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난다. 10대에게 있어, 사회적 무질서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오는 것은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측정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개의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 또한) 사회적 무질서로 사용되는 문항 중의 하나는 폐지어 물려다니는 청소년들이 있는가하는 것이다. 때문에, 10대의 경우는 10대들이 폐지어 물려다니는 것 그 자체를 무질서 혹은 통제의 부재에서 오는 두려움에 대한 상징적 신호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전 연령대의 성별에 걸쳐 일관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변인으로서 물리적 무질서를 들 수 있다. 물리적 무질서는 10대 남성, 30대 여성, 그리고 70대 이상의 남성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대에 걸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지역의 물리적 무질서에 대한 높은 인지는 두려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경험 또한 비교적 일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일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있는 반면에 연령별, 성별에 따라 상이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들 또한 존재한다. 교육수준과 가구수입의 영향은 각각 연령별 성별에 따라 극명하게 대비된다. 교육수준의 경우, 오직 30대, 40대, 그리고 50대 남성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데 반해서, 가구수입은 오직 20대, 30대, 50대, 60대, 그리고 70대 이상의 여성에게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교육과 가구수입은 특정 연령과 성별에 보다 친화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통제변인으로 사용된 비공식통제와 공식통제의 영향력은 보다 산발적으로 나타났다. 일관된 영향이나 특정한 경향은 발견되지 않으나 공식통제의 영향은 매우 흥미롭다. 예를 들어, 공식통제의 영향은 주로 60대 이상에게만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범죄의 두려움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결과는 노령층에게만 나타난다고 해석 가능하다.

각 연령별로 비교를 하면, 기존의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설명방식으로는 10대가

가지는 두려움을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특히, 10대 남성의 두려움에 어떠한 독립변인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함을 보여준다.

표 9. 강도·절도·폭행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회귀분석 : 연령별 성별차이를 중심으로(1)

변인	10대		20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B(SE)	B(SE)	B(SE)	B(SE)
교육	-0.182 (0.17)	0.063 (0.18)	-0.067 (0.17)	-0.035 (0.18)
소득	0.057 (0.09)	0.171 (0.10)	0.139 (0.07)	0.209** (0.07)
피해경험	0.727 (0.38)	0.845* (0.41)	1.000** (0.35)	0.545 (0.31)
사회무질서	0.076 (0.06)	0.08 (0.06)	0.136** (0.05)	0.186*** (0.05)
물리적무질서	0.084 (0.06)	0.235*** (0.06)	0.109* (0.05)	0.143** (0.05)
비공식통제	0.064 (0.04)	-0.024 (0.04)	0.007 (0.04)	-0.013 (0.03)
공식통제	0.012 (0.04)	0.063 (0.05)	-0.009 (0.04)	0.004 (0.03)
상수	5.506*** (1.03)	4.493*** (1.15)	4.606*** (1.04)	5.405*** (1.02)
R-squared	0.03	0.08	0.06	0.09

* $p < .05$ ** $p < .01$ *** $p < .001$

표 9. 강도·절도·폭행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회귀분석 : 연령별 성별차이를 중심으로(2)

변인	30대		40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B(SE)	B(SE)	B(SE)	B(SE)
교육	0.326** (0.12)	0.109 (0.12)	0.266** (0.10)	-0.128 (0.10)
소득	0.145 (0.08)	0.168* (0.07)	-0.023 (0.07)	0.137 (0.07)

피해경험	0.911*** (0.27)	0.670* (0.29)	0.720** (0.25)	0.511 (0.30)
사회무질서	0.209*** (0.05)	0.207*** (0.05)	0.185*** (0.04)	0.252*** (0.04)
물리적무질서	0.142** (0.04)	0.057 (0.04)	0.094* (0.04)	0.099* (0.04)
비공식통제	-0.046 (0.03)	-0.059* (0.03)	-0.058* (0.03)	0.005 (0.03)
공식통제	0.012 (0.03)	0.016 (0.03)	-0.028 (0.03)	-0.007 (0.03)
상수	3.059*** (0.85)	5.851*** (0.79)	5.220*** (0.71)	5.323*** (0.72)
R-squared	0.11	0.07	0.08	0.10

* $p < .05$ ** $p < .01$ *** $p < .001$

표 9. 강도·절도·폭행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회귀분석 : 연령별 성별차이를 중심으로(3)

변인	50대		60대		70대이상	
	남성 B(SE)	여성 B(SE)	남성 B(SE)	여성 B(SE)	남성 B(SE)	여성 B(SE)
교육	0.211* (0.09)	-0.068 (0.10)	-0.02 (0.11)	0.197 (0.12)	0.013 (0.13)	-0.27 (0.18)
소득	-0.029 (0.07)	0.154* (0.07)	0.098 (0.09)	0.236** (0.09)	0.23 (0.13)	0.184* (0.08)
피해경험	0.808** (0.30)	0.930* (0.38)	1.068** (0.40)	1.431* (0.58)	0.446 (0.75)	1.300* (0.52)
사회무질서	0.211*** (0.05)	0.197*** (0.05)	0.215*** (0.06)	0.211*** (0.06)	0.181* (0.07)	0.081 (0.06)
물리적무질서	0.150*** (0.04)	0.171*** (0.04)	0.085 (0.05)	0.150** (0.05)	0.088 (0.06)	0.308*** (0.05)
비공식통제	0.048 (0.03)	0.037 (0.03)	0.015 (0.04)	0.021 (0.04)	-0.006 (0.04)	0.06 (0.03)
공식통제	-0.034 (0.03)	-0.022 (0.04)	-0.095* (0.05)	-0.138*** (0.04)	-0.015 (0.06)	-0.148*** (0.04)
상수	3.556*** (0.76)	4.590*** (0.78)	5.577*** (1.00)	5.627*** (0.85)	4.400*** (1.12)	5.237*** (0.82)
R-squared	0.10	0.11	0.10	0.15	0.06	0.17

* $p < .05$ ** $p < .01$ *** $p < .001$

<표 10>는 ‘성관련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연령별 성별에 따른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전 연령에 걸쳐 일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회적 무질서 변인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무질서는 10대 남성과 70대 이상의 남성을 제외한 전 연령층의 남녀 모두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그 외의 변인들은 각 연령별로 혹은 성별에 따라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비공식적 통제의 효과는 연령에 따라 그 방향성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 20대 여성, 30대 여성 그리고 40대 남성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비공식적 통제는 부정적이다. 즉, 비공식적 통제의 수준이 높을수록 두려움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50대부터 60대, 70대 이상의 여성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비공식적 통제의 방향성은 정적이다. 다시 말해서, 50대 이상의 여성들은 높은 수준의 비공식적 통제를 느낄수록 더 높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0. 성관련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회귀분석 : 연령별 성별차이를 중심으로(1)

변인	10대		20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B(SE)	B(SE)	B(SE)	B(SE)
교육	-0.005 (0.11)	0.292* (0.13)	-0.019 (0.12)	-0.071 (0.14)
소득	0.028 (0.06)	0.078 (0.08)	0.119* (0.05)	0.182** (0.06)
피해경험	0.043 (0.26)	0.403 (0.30)	0.405 (0.24)	0.905*** (0.24)
사회무질서	0.069 (0.04)	0.106* (0.05)	0.072* (0.04)	0.184*** (0.04)
물리적무질서	0.03 (0.04)	0.131** (0.05)	0.044 (0.03)	0.039 (0.03)
비공식통제	0.038 (0.03)	0.029 (0.03)	0.019 (0.02)	-0.062* (0.03)
공식통제	0.007 (0.03)	0.046 (0.04)	-0.002 (0.02)	0.048 (0.03)
상수	2.663*** (0.70)	1.478 (0.85)	2.253** (0.72)	3.656*** (0.78)
R-squared	0.02	0.08	0.03	0.10

* $p < .05$ ** $p < .01$ *** $p < .001$

표 10. 성관련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회귀분석 : 연령별 성별차이를 중심으로(2)

변인	30대		40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B(SE)	B(SE)	B(SE)	B(SE)
교육	0,075 (0,08)	0,127 (0,08)	0,136* (0,06)	0,064 (0,07)
소득	0,061 (0,05)	0,056 (0,05)	0,071 (0,05)	-0,011 (0,05)
피해경험	0,139 (0,18)	0,313 (0,21)	0,252 (0,17)	0,387 (0,21)
사회무질서	0,142*** (0,03)	0,169*** (0,03)	0,116*** (0,03)	0,088** (0,03)
물리적무질서	0,047 (0,03)	0,079** (0,03)	0,023 (0,03)	0,063* (0,03)
비공식통제	-0,016 (0,02)	-0,063** (0,02)	-0,055** (0,02)	-0,021 (0,02)
공식통제	0,005 (0,02)	0,004 (0,02)	-0,001 (0,02)	-0,007 (0,02)
상수	2,119*** (0,57)	3,501*** (0,56)	2,799*** (0,47)	4,099*** (0,51)
R-squared	0,06	0,10	0,06	0,04

* $p < .05$ ** $p < .01$ *** $p < .001$

표 10. 성관련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회귀분석 : 연령별 성별차이를 중심으로(3)

변인	50대		60대		70대이상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B(SE)	B(SE)	B(SE)	B(SE)	B(SE)	B(SE)
교육	0,125* (0,06)	0,005 (0,07)	-0,051 (0,06)	0,195** (0,07)	-0,169* (0,07)	-0,033 (0,11)
소득	-0,034 (0,05)	0,085 (0,05)	0,130* (0,05)	0,107 (0,05)	0,116 (0,07)	0,034 (0,05)
피해경험	0,096 (0,18)	0,204 (0,26)	0,295 (0,23)	0,422 (0,35)	0,795* (0,39)	0,081 (0,31)
사회무질서	0,151*** (0,03)	0,105*** (0,03)	0,117** (0,04)	0,139*** (0,03)	0,064 (0,04)	0,068* (0,03)
물리적무질서	0,022 (0,03)	0,120*** (0,03)	0,028 (0,03)	0,021 (0,03)	0,05 (0,03)	0,156*** (0,03)
비공식통제	0,032 (0,02)	0,051* (0,02)	0,008 (0,02)	0,068** (0,02)	0,014 (0,02)	0,051** (0,02)

공식통제	-0,039 (0,02)	-0,032 (0,02)	-0,032 (0,03)	-0,102*** (0,02)	-0,034 (0,03)	-0,069** (0,02)
상수	2,244*** (0,47)	2,287*** (0,52)	2,553*** (0,58)	2,811*** (0,52)	2,895*** (0,58)	2,305*** (0,49)
R-squared	0,07	0,09	0,07	0,12	0,07	0,13

* $p < .05$ ** $p < .01$ *** $p < .001$

연령별 성별에 따른 범죄의 두려움의 차이를 종합해보면, 사회적 무질서와 같이 전 연령대에 걸쳐 또한 어떠한 두려움이나에 상관없이 남녀 공히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는 변인이 있는 반면에, 교육이나 가구수입과 같이 특정 연령대와 성별에만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는 변인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성관련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비공식통제의 영향과 같이 연령대에 따라 그 영향력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의 두려움 연구에서 발전-생애과정범죄학적 관점의 도입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이 두려워한다고 보고한다. 이처럼 성(性)이란 변인은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일관적이고 강력한 설명변수로서 존재해왔다.

범죄의 두려움에서 나타나는 성차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한 설명방식으로 연구들을 진행해 왔으며, 성(性)과 범죄 두려움사이에 정적인(static)효과를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性)과 범죄 두려움간의 관계가 보다 역동적일 것이란 가정에서 출발했으며, 과연 한국에서도 범죄의 두려움 패러독스가 존재하는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의 두려움이 정적인(static) 관계가 아닌 연령에 따라 보다 역동적일 것이란 발전-생애과정범죄학적 관점에 근거하여, 연령을 고려했을 때 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연령별로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차이가 있는지도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먼저, 한국에서 범죄의 두려움 패러독스에 대해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절도·폭행’과 ‘성관련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 연령의 효과가 부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성과 연령이 두려움에 미치는 상호작용은 서구의 연구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대다수 서구의 연구들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범죄의 두려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했지만, 한국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범죄의 두려움은 감소하였다.

또한 이러한 효과는 범죄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강도·절도·폭행’범죄의 두려움에 대해서 여성의 경우 연령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였고, 남성은 낮은 수준에서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강도·절도·폭행’범죄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연령이 성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성관련범죄’ 두려움의 경우 있어도 남성 여성 모두 연령의 증가에 따라 두려움은 감소하며 초기의 차이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종합해 보면 기존의 남녀간 두려움의 성차를 설명하는 가설들(이중위험가설과 평준화가설) 중에서 평준화 가설이 한국사회에 보다 적합한 설명방식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하지만, 남녀 간의 두려움의 폭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줄어들고 평준화를 이루는 방식은 서구 이론과 경험적 연구에서 나타났던 방식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남녀간 두려움의 성차를 설명하는 가설들이 적합하지 않는지 한국사회의 권위주의와 가족구조를 중심으로 추측을 해 보고자 한다. 한국사회에서는 직능관계나 조직관계를 떠나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서 우열 또는 상하의 차등을 두어왔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서 중요시 되어왔던 요인이 나이이다. 나이는 권위의 전통적인 원천이며, 한국사회에서 나이들이란 권위라는 사회적 자원을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노인은 신체적인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서구에 비해 한국은 노인이 혼자 주거할 가능성이 적다. 즉,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구의 노인들에 비해 범죄의 두려움을 덜 느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발생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한국에서 연령의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범죄의 두려움 감소는 지극히 이성적인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범죄 두려움연구에서 개인적 취약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신체적 취약성의 하나로서 간주되던 ‘연령’의 효과는 기존의 취약성 관점과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사회적 취약성의 하나로서 간주되던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교육수준과 가구 수입의 경우에 있어서도 기존의 관점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취약성의 측정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한국적 상황에서의 이러한 변인들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맥락의 상이성에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범죄의 두려움에 있어서의 연령의 효과에 대한 사회문화적 분석의 필요성과 중년층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대두되었던 교육수준과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주었던 가구수입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도가 궁극적으로는 한국적 상황에 맞는 범죄의 두려움 모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발전-생애과정범죄학적 관점에서 말하는 연령별 발달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경험적 근거들을 제시하였다. 각 연령별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연령대에 따라 두려움의 실체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의 모델로는 10대의 두려움을 전혀 설명을 못하며,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른 유의미한 요인들이 나타나듯이, 범죄의 두려움은 연령에 따라 혹은 성별에 따라 다른 모양새를 띠고 있음을 보여줬다. 따라서 앞으로의 범죄의 두려움을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함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범죄의 두려움이 가지는 개념적 다차원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많은 연구들(Garofalo and Laub, 1978; Merry, 1981; Smith, 1986; Bursik and Grasmick, 1993)에서 보듯이, 특정 계층이 범죄의 두려움으로서 느끼는 두려움은 그들의 삶 속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어떤 것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넷(Sennet, 1998)의 지적과 같이, 삶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파생되는 광범위한 불안이 일종의 전이된 불안(Furstenburg, 1971)으로서 나타날 개연성은 충분히 크다. 다시 말해서, 살아가는 삶이 버겁고 삶의 불확실성에 압도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의 삶에 대한 믿음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표현되는 것처럼(Farrall et al., 2009), 사회의 광범위한 불안은 전이된 불안의 형태로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88세대로 대변되는 요즘의 젊은이들이 더 높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그들의 일상활동이나 라이프스타일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세넷의 지적처럼 요즘 세대들이 경험하는 밝지 못한 미래와 삶을 위협하는 부정적 정보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연수 · 장석현, 2010. 범죄피해 : 두려움의 패러독스에 관한 진화심리학적 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41: 53-98.
- 김은경 · 최수형 · 박정선, 2009.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IV).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09-01.
- 김지선, 2004.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부모의 두려움. 피해자학연구 12(1): 25-57.
- 노성호 · 김지선, 1998. 범죄의 두려움에 관한 경험적 연구. 피해자학연구 6: 169-206.
- 심영희 · 김준호, 1992.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순래 · 박철현, 2000. 범죄현상에 대한 새로운 분석틀. 한국공안행정학회보 9: 81-125.
- 조은경, 2003.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9(1): 1-21.
- 차훈진, 2008. 성별에 따른 범죄에 대한 인식이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경찰연구 7(2): 177-210.
- Alvi, S., Schwartz, M. D., DeKeseredy, W. S. & Maume, M. O. (2001). Women's Fear of Crime in Canadiannnnn Public Housing. *Violence Against Women*, 7(6): 638-661.
- Balkin, S. (1979). Victimization Rates, Safety and Fear of Crime in a Local Context. *Crime, Media, Culture*, 1(2), 169-187.
- Baumer, T. L. (1985). Testing a General Model of Fear of Crime: Data From a National Sampl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2(3),
- Box, S., Hale, C. and Andrews, G. (1988). Explaining Fear of Crim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23, 340-356.
- Bursik, R.J. and Grasmick, H. (1993). *Neighborhoods and Crime: The Dimensions*

- of Effective Community Control*. New York: Lexington Books.
- Conklin, J.E. (1975). *The Impact of Crime*. New York: Macmillan.
- Cops, D. and Pleysier, S. (2011). 'Doing Gender' in Fear Of Crime: The Impact of Gender Inequality on Reported Levels of Fear of Crime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51(1), 58-74.
- Covington, J. and Taylor, R.B. (1991). Fear of Crime in Urban Residential Neighborhoods: Implications of Between- and Within-neighborhood Sources for Current Models. *The Sociological Quarterly*, 32(2), 231-249.
- Ferraro, K.F. (1995). *Fear of Crime: Interpreting Victimization Risk*. New York: SUNY Press.
- Ferraro, K.F. and LaGrange, R. (1987). The Measurement of Fear of Crime. *Sociological Inquiry*, 57(1), 70-101.
- Fetchenhauer, D. and Buunk, B. (2005). How to Explain Gender Differences in Fear of Crime : Towards an Evolutionary Approach. *Sexualities, Evolution and Gender*, 7(2), 95-113.
- Furstenberg, F. (1971). Public Reaction to Crime in the Streets. *American Scholar*, 40, 601-610.
- Garofalo, J. (1979). Victimization and the Fear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6, 80-97.
- Garofalo, J. and Laub, J. (1978). The Fear of Crime: Broadening Our Perspective. *Victimology*, 3, 242-253.
- Hale, C. (1996). Fear of Crime: A Review of Literature. *International Review of Victimology*, 4, 79-150.
- Killias, M. (1990). Vulnerability: Towards a better understanding of a key variable in the genesis of fear of crime. *Violence and Victims*, 5(2), 97-108.
- Killias, M. and Clerici, C. (2000). Different Measures of Vulnerability in Their Relation to Different Dimensions of Fear of Crim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0(3), 437-450.

- Lewis, D.A. and Maxfield, M.G. (1980). Fear in the Neighborhoods: An investigation of the impact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7, 160-189.
- Lewis, D.A. and Salem, G. (1981). Community Crime Prevention: An Analysis of a developing strategy. *Crime and Delinquency*, 27, 405-421.
- Lewis, D.A. and Salem, G. (1986). *Fear of Crime: Incivility and the Production of a social problem*. New Brunswick: Transaction Books.
- Liska, A.E., Sanchirico, A. and Reed, M.A. (1988). Fear of Crime and Constrained Behavior: Specifying and estimating a reciprocal effects model. *Social Forces*, 66, 760-770.
- Maxfield, M. G. (1984). The Limits of Vulnerability in Explaining Fear of Crime: A Comparative Neighborhood Analysis.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1(3), 233-250.
- Merry, S. (1981). *Urban Danger: Life in a Neighborhood of Strangers*.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 Morrongiello, B., and Dawber, T. (2000). 'Mothers' Responses to Sons and Daughters Engaging in Injury-risk Behaviors on a Playground: Implications for Sex Differences in Injury Rate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76, 89-103.
- Ortega, S. T. and Myles, J. L. (1987). Race and Gender Effects on Fear of Crime: An Interactive Model with Age. *Criminology*, 25(1), 133-152.
- Perloff, R. M. (1983). Perception of Vulnerability to Victimization. *Journal of Social Issue*, 39(2), 41-61.
- Reid, L. W. and Konrad, M. (2004) The Gender Gap in Fear: Assessing the interactive effects on Gender and Perceived Risk on Fear of Crime. *Sociological Spectrum*, 24, 399-425.
- Sampson, R.J. and Earls, F.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 918-924.

- Sennett, R. (1998). *The Corrosion of Character*. New York: Norton and Co.
- Skogan, W. (1986). Fear of Crime and Neighborhood Change. *Crime and Justice*, 8, 203-229.
- Skogan, W. and Maxfield, M. (1981). *Coping with Crime*. Beverly Hills, CA: Sage.
- Taylor, R.B and Hale, M. (1986). Testing Alternative Models of Fear of Crim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7, 151-189.
- Warr, M. (1984). Fear of Victimization: Why are women and the elderly more afraid. *Social Science Quarterly*, 3(1), 29-46.

Victimization-fear paradox in Korea : An interactive model with age from a developmental & life-course perspective

Chang, Ansik* · Jung, Hye-Won** · Park, Chulhyun***

One of the robust findings in the fear of crime research is that gender plays a central role in determining fear. And, regardless of age or other SES statuses, most studies report that females are more fearful of crime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However, not many research have delved deeper into this paradoxical relationship. In other words, most research have neglected how and which predictors of fear are similar and different between females and males throughout their life stages.

Obviously, a variety of prior research approaches have contributed to more fully understanding the extent and the nature of fear of crime among different types of people and the different types of environmental settings. However, the results on fear of crime are not wholly consistent. One of the reason for this inconsistency is due to the assumption that there is a static relationship between gender or age and fear of crime.

Based on the developmental & life-course perspective,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paradoxical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nd age on the fear of crime in Korea. First,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gender and age interact their effects on fear of crime. Second, by examining different age groups, this article investigates that whether there 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determinants on the

* Lecturer, Dong-Eui University

** Researcher, Women's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Associate Professor, Dong-Eui University

fear of crime among different age groups.

This study provides a developmental & life-course analysis evaluating on the different determinants of the fear of crime. This study confirms that there are some similar but mostly different determinants on the fear of crime among different gender and age groups.

❖ Key word : Victimization-fear paradox, developmental & life-course perspective